



환희 · 찬탄의 날... 세계적 축제로

1975년 제2회 국무회의서 법정 공휴일로 제정



부처님오신날이 법정 공휴일로 제정된 1975년, '석탄일 공휴일법 제정 경축대강연회'가 1월 27일 한국불교회 주최로 열리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 1975년 1월 15일 오전 10시 이원경 문공부장관은 담화문을 발표한다. "정부는 14일 제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제정하고 올해부터 실시한다. 석가탄신일은 음력 4월 8일로, 어린이날은 5월 5일로 한다."

이 같은 소식이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봉축 현수막을 내걸었고 불자들은 기쁨의 환성을 질렀다. 부처님오신날이 법정 공휴일로 제정된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로 제정되면서 불자들의 신행과 봉축행사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부처님오신날 법회에 참석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사침을 찔른 일반국민도 늘어났다. 가족단위로 법회에 참석하거나 봉축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족신행'의 디딤돌이 되기도 했다.

불교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고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된 것도 중요한 변화중 하나였다. 봉축행사가 시민축제로 자리잡게 된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목소리는 해방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1963년 조계종 총무원이 '부처님 탄일 공휴일 제정' 대정부 건의서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본격 시작했다. 69년 2월에는 불교 13개 종파가 대표자회의를

열어 4·8 공휴제정운동을 결의했다.

71년 조계종 총무원이 '4·8월 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이어 추진위가 발족했다. 72년 석주 스님을 위원장으로 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73년 다시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로 제정된 것에는 특히 용태영 변호사의 역할이 컸다.

용 변호사가 공휴일 지정의 '대표 열골'이라면 김선홍 前 강화군수는 '숨은 주역'이다. 김 군수는 동국대 대학원생이었던 63년 '국가공휴일 지정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무종교 법학도였던 김 군수는 성탄절에 비해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는 헌법 제16조에 위배되는 것이

헌법 제16조 '종교의 자유' 위배 행정소송 용태영 변호사, 김선홍 前 강화군수 '주역'

공중과 법요식 생중계로 국민적 관심 커져 종단·봉축위 등 노력, 신행 확산 이끌어

○... 용 변호사는, 1600년의 역사를 가진 불교가 쫓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73년 당시 총부처장관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석가탄신일 공휴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 용 변호사 개인이 피해자를 본 것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취지 판결로 소송을 각하했다. 용 변호사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 75년 정부로부터 법정 공휴일 지정 공포를 받아냈다.

라고 판단, 소장을 서울고법에 접수시킨 것이다. 김해근 열반종 총무원장은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전국에 생중계 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했다. 당시 중앙방송에 근무했던 김해근 원장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본 것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취지 판결로 소송을 각하했다. 용 변호사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 75년 정부로부터 법정 공휴일 지정 공포를 받아냈다.

○... 이처럼 부처님오신날이 법정 공휴일로 제정된 후 봉축법요식과 제등행진은 축제의 마당으로 확대됐다. 우선 참가 인원의 대폭 증가다. 초기 수천 명 정도 참가했던 제등행진은 현재 서울에서만 수십만 명이 동참, 외국인들도 참여하는 '세계인의 축제'가 됐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종의 관광상품으로 활용돼 한국 전통문화를 외국인들에게 각인시키는 매개체로 자리 잡았다.

○... 봉축 장엄물의 변화도 눈부실 정도다. 초기에는 개인이 준비하거나 사찰 신도회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작하던 단순한 형태의 연등을 들고 제등행진을 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온갖 장식물을 부착한 충전연쇄 연등이 도시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지금은 연등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가 운영될 정도다. 각 종단이나 도심사찰들이 심혈을 기울여 마련하는 대형연등은 국민들의 시선을 운룡 사로잡는다.

연등축제 준비를 담당하는 봉축위원회 위상에도 크게 달라졌다. 초파일 행사 한 달 여 앞두고 몇몇 조계종 총무원을 중심으로 꾸려졌던 봉축위원회는 90년대 후반, 종단 상설기구가 됐다.

연등축제의 골격도 많았다. 박정희 정권은 남북 교류를 하며 북한 방문단과 제등행진을 일부러 마주치게 해,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음을 부각시키려고 유도했다.

연등축제가 민주화 운동의 한복판에서 진행된 적도 있다. 80년대 말 여의도를 출발한 제등행진은 마포에서 시위대와 마주쳤다. 이때 전경들이 발사한 최루탄이 제등행진에 떨어지자 축제는 일순간 이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 연등축제는 이제 단순 참가를 뛰어 넘어 참가자 모두가 축제의 주인공 '종합축제'로 발전했다. 7살짜리도 따라할 수 있는 율동과 음악의 도입이 공평의 열쇠가 됐다. 이에 제등행진 그룹화도 한 몫을 했다. 규모가 작은 참여단체가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다섯 개 그룹으로 크고 작은 참가단체를 고루 섞고 행진 순서도 해마다 바꿨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박상희 과장은 "일회성 축제가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연등축제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연등축제 기원과 역사

손에 손에 등 밝혀들고 깨달음의 삶 발원

매해 음력 4월의 밤거리를 환하게 밝히는 '연등축제.'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연등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국민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거리를 오가는 단순한 제등행진에서 전통불교의식을 비롯해 공연 전시 오락성을 가미한 현대식 축제로의 변화는 참으로 괄목상대할 것이다. 1976년 뜻있는 불자들의 노력으로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며 제등행진이 활성화된 지 올해로 30년째다.

연등축제의 기원은 부처님이 살아계실 당시로 올라간다. <현우경>에 따르면, 가난한 여인 '난타'가 부처님께 등 공양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처님이 영축산에 계시실 때의 일로, 밤이 깊어 다른 등불은 모두 꺼졌지만 지극한 정성과 발원으로 밝힌 난타의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다. 부처님은 이를 보고 "이 여인은 등불공양의 공덕으로 성불할 것이며 수미등광여래라 할 것이다"고 수기를 했다

○... 1976년 뜻있는 불자들의 노력으로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며 제등행진이 활성화된 지 올해로 30년째다. 연등축제의 기원은 부처님이 살아계실 당시로 올라간다. <현우경>에 따르면, 가난한 여인 '난타'가 부처님께 등 공양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처님이 영축산에 계시실 때의 일로, 밤이 깊어 다른 등불은 모두 꺼졌지만 지극한 정성과 발원으로 밝힌 난타의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다. 부처님은 이를 보고 "이 여인은 등불공양의 공덕으로 성불할 것이며 수미등광여래라 할 것이다"고 수기를 했다

○... 1976년 뜻있는 불자들의 노력으로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며 제등행진이 활성화된 지 올해로 30년째다. 연등축제의 기원은 부처님이 살아계실 당시로 올라간다. <현우경>에 따르면, 가난한 여인 '난타'가 부처님께 등 공양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처님이 영축산에 계시실 때의 일로, 밤이 깊어 다른 등불은 모두 꺼졌지만 지극한 정성과 발원으로 밝힌 난타의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다. 부처님은 이를 보고 "이 여인은 등불공양의 공덕으로 성불할 것이며 수미등광여래라 할 것이다"고 수기를 했다

한국에서 열린 연등축제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처음 등장한다. 신라 경문왕 6년(866) 정월 15일과 진성여왕 4년(890) 정월 15일, 왕이 직접 황룡사로 행차해 연등(燃燈)을 구경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불교가 국교였던 만큼 고려시대 연등축제는 국가적 행사로 치러졌다. 연등회는 팔관회

와 함께 고려 2대 명절로 정착했으며 연등축제를 관리하기 위한 연등도감(연등도감)이 설치될 정도였다. 음력 정월 보름과 2월 보름은 나라의 흥년을 기원하며 궁궐부터 시골까지 갖가지 연등을 밝히고 잔치 가무를 즐겼다.

조선시대에는 억불정책에 따라 관청중심의 행사는 중지됐으나 연등축제는 민간 중심의 민속놀이로 치러졌다. 아이들이 초파일 연등을 만들기 위해 서울 시내를 돌며 돈과 쌀을 얻는 '호기놀이'가 크게 유행했다. 초파일 낮에는 절에서 공양을 올리

고 저녁에는 자식 숫자대로 집에 등을 밝혔다. 일제시대에는 광화문 동 광장, 조선은행 앞 광장, 장충단, 경성부, 탑골공원 등지에서 관불의식이 진행됐다. 저녁에는 공양올린 등을 밝히고

종로 을지로 광화문을 도는 제등행진을 했다. 해방 이후에는 조계사-종로4가-을지로-시청앞-안국동-조계사를 도는 제등행진을 했고 이후에는 동국대-종로-조계사 코스와 여의도-마포-조계사 코스가 제등행진에 이용됐다. 현재 동대문운동장-종로-조계사로 이어지는 연등행진은 1996년부터 시행됐다. 특히 이마부터 어울림마당, 대동한마당, 불교문화한마당 등 행사가 함께 열리며 연등축제는 종합축제로 발전했다.

○... 1976년 뜻있는 불자들의 노력으로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며 제등행진이 활성화된 지 올해로 30년째다. 연등축제의 기원은 부처님이 살아계실 당시로 올라간다. <현우경>에 따르면, 가난한 여인 '난타'가 부처님께 등 공양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처님이 영축산에 계시실 때의 일로, 밤이 깊어 다른 등불은 모두 꺼졌지만 지극한 정성과 발원으로 밝힌 난타의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다. 부처님은 이를 보고 "이 여인은 등불공양의 공덕으로 성불할 것이며 수미등광여래라 할 것이다"고 수기를 했다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때의 이모저모



현대불교 자료사진

내 한마음 깨우치면 오늘이 부처님 오신날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Hanmaum Seon Center

원장 대행
주지 혜원

사부대중 일동

▶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전화: 사무처 031)470-3100
팩스: 031)470-3116
홈페이지: http://www.hanmaum.org

◆ 국내지원 ◆

- 광명선원 총북 음성군 금왕읍 무곡 4구 산 5-2
TEL : 043-877-5000 FAX :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 : 064-727-3100 FAX : 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FAX :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 FAX :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 052-295-2335 FAX :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 : 053-767-3100 FAX : 053)765-1600
- 충북청주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 055-345-9900 FAX : 055)346-2179
- 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 055-744-1321 FAX : 055)746-7825
- 공주지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 : 041-852-9100, 9102 FAX : 041)852-9105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 054-232-3163 FAX : 054)241-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3-1
TEL : 043-259-5599 FAX :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
TEL : 033-651-3003 FAX :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643-0643 FAX :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61-284-1771 FAX :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2
TEL : 054) 555-8871 FAX : 054)556-1989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 : (1-718)460-2019 / FAX : (1-718)939-3974
- Washington D.C.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 : (1-703)560-5166 / FAX : (1-703)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 : (1-323)766-1316 / FAX : (1-323)766-1916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 : (1-847)674-0811 / FAX : (1-847)674-2280
- CANADA (캐나다 지원)
- Toronto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 : (1-416)750-7943 / FAX : (1-416)701-1359
- Vancouver (밴쿠버 지원)
14069 104 Avenue Surrey, B.C.V3T1X4 CANADA
TEL : 1-604-582-8234
-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p(1406) Cap. Fed. Rep. Argentina
TEL : (54-11)4921-9286 / FAX : (54-11)4921-9286
- Tucuman (투쿠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cp(4107) Tucuman, Rep. Argentina
TEL : (54-381)425-1400
- GERMANY (독일 지원)
-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 (49-(0)2131)969551 / FAX : (49-(0)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원)
-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 : (66-2)391-0091